

2023 세계 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무주서

# 무예의 미학·실전 기술 결합

3~5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서... 21개국 1000여명 참가 선수들, 국가대표·생활체육 등 2개 부문서 실력 겨뤄

2023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이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와 태권도진흥재단(이하 TPF)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21개국에서 1,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이날 1일부터 무주 태권도원에서 국제심판 교육, 경기 운영 교육, 태권도원 투어 등을 즐겼다.

2일에는 조정원 WT 총재와 양진방 KTA 회장,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이종갑 TPF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대홀에서 진행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원 WT 총재는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참여를 위해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무주 태권도원에서의 시간이 서로의 태권도 품새와 문화를 교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3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가 무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 위상과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소통과 화합의 태권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군에서는 태권도의 세계화, 대중화,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과 해외태권도 원로사범을 위한 태권마를 조성, 그리고 태권 브이랜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세계 태권도 성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무주를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3일부서는 경기와 축하공연, 국제심판 및 대회 임원 간담회,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수들은 국가대표와 생활체육 등 2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룬다. 국가대표 부문은 개인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로, 생활체육 부문은 개인과 복식 단체공인 품새 경기로 치러진다.

한편 세계태권도연맹이 인증한 국제 품새대회인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는 세계 태권도수련생들의 태권도원 방문과 상호 교류 및 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품새(공인품새, 자유품새) 경기의 올림픽 종목 채택 등 세계화를 위한 대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텍사스 레인저스, 창단 62년 만에 WS 첫 우승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들이 1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파닉스의 채이스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5차전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물리친 후 우승컵을 앞에 두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텍사스는 애리조나를 5-0으로 완파하고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창단 첫 WS 정상에 올랐다.

## 3대3 농구 최강팀 가린다

3X3 코리아 투어 2023 파이널

4일부터 이틀간 전주교체육관서

3X3 농구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까지 영향을 미치는 'KBA(대한민국농구협회) 3X3 KOREA TOUR 2023 파이널' 경기가 전주에서 치러진다.

전주시와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전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3X3 농구선수들의 최종 경기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3X3 농구는 양 팀 3명씩의 선수가 출전해 기존 농구장의 하프코트만 사용해 진행되는 농구경기다. 경기 시간은 10분이며, 한 팀이 2점을 먼저 득점하면 남은 시간과 관계없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일반 농구 경기와 달리 기본 득점이 1점이고, 아크 바깥에서 넣은 슈트는 3점이 주어지는 일반 농구경기와 달리 2점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3X3 농구의 우수선수 발굴과 양성과 함께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초등부(6개팀)와 중학부(8개팀), 고등부(4개팀), 오픈부(6개팀), 여자오픈부(3개팀), 코리아리그(남·7개팀), 코리아리그(여·4개팀)로 나눠 격돌한다.

격돌할 팀들은 지난 4월(15~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강원 인제군(5월 13~14일), 경남 양산시(6월 10~11일), 전북 익산시(7월15~16일), 충북 제천시(9월 9~10일)에서 치러진 예선 경기를 뚫고 파이널무대에 선다.



KBA 3x3 KOREA TOUR 2023 파이널 전주대회

치열한 예선 경기를 뚫고 파이널무대에 선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와 아시안게임·올림픽의 참가 자격을 결정짓는 랭킹포인트가 주어지며 의미를 더한다. 구체적으로 파이널경기에서 1등을 차지한 최고의 팀에게는 초등부 100점과 중학부 160점, 고등부 220점, 오픈부 280점, 여자오픈부 160점, 코리아리그(남) 400점, 코리아리그(여) 300점의 랭킹포인트가 주어진다. 이 점수는 국내에서 열리는 3X3 농구 경기에서 가장 높은 랭킹포인트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랭킹포인트와 함께 부분별 1~3위 입상팀에게는 순위에 따른 상품과 트로피도 제공된다. 이 같은 권위 있는 대회는 많은 기

관 및 단체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와 전주시가 주최한 대회에는 전북농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아이에스동서의 후원과 동아오츠카와 몰텐코리아, 유니콘벤처 등 협찬을 받아 성사됐다.

대회를 주최한 대한민국농구협회와 전주시는 이번 대회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종합 경기대회뿐 아니라 국제농구연맹(FIBA)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국제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발의 공정한 장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X3 농구가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저변 확대 및 국민스포츠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갖고 대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는 대회가 권위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순한 이벤트 성격의 대회로 남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농구협회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농구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3X3 농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누구나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양성·배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욱기 기자

## 세계 품새 선수들과 함께하는 '어느 특별한 날'

태권도원 평원관서

품새 세미나 열려



교 노형준 교수의 특별 지도가 진행되어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제이콥(미국)은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챔피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온 시오자키 켄은 "수련은 힘들었지만,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많은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품새 세미나와 더불어 해외 심판 선수 등을 위해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태권도 동작

으로 디자인한 자개를 활용, 나전공예 체험으로 휴대용 그림책과 손거울을 만드는 체험을 대회 기간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진행한다.

또한, 태권도 상설공연 관람과 전망대 등 태권도원 투어와 함께 전주시를 방문해 경기장에서의 역사 해설과 비빔밥 식사 등 전주한옥마을 투어도 진행하며 태권도 문화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품새오픈챌린지를 하루 앞두고 대회 참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다양한 한국 문화 탐방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겨루기와는 달리 품새만의 멋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대회에 많은 분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G4 등급의 세계 대회에 함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1 지속가능경영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 The Sustainability Yearbook 2021 화학부문 우수기업 | '21 DJSI Korea 지수 13년 연속 편입 | 한국지배구조원 ESG평가 A등급 획득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실증사업 실시

축! 전주매일 창간

# 글로벌 그린 케미칼 산업의 리더 OCI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를 열어갑니다